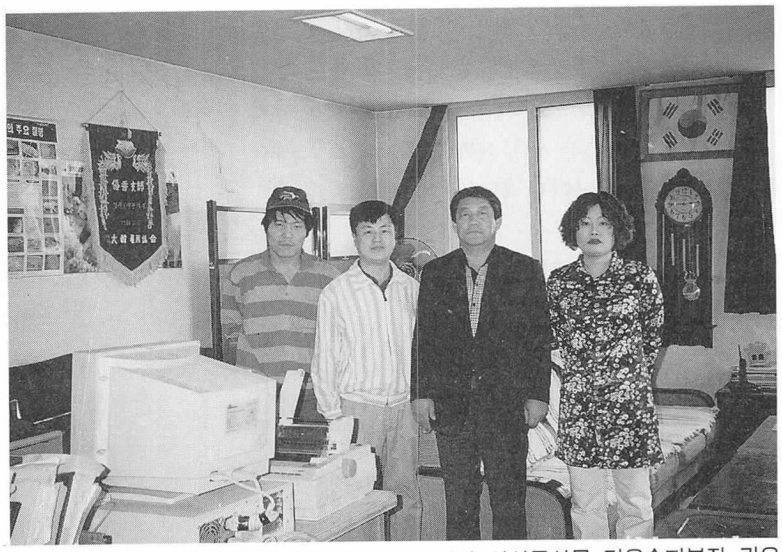
'95 우수지부로 선정된 철원지부

돼지고기 수출 · 직판장 설치 · 「양돈대학」 통해 회원 참여 유도

취재 : 추용진

본회 91개 지부 중에서 95년 한해 우수 지부로 선정된 철원지부(지부장 : 김용수)는 85년 5월에 창립되어 현재 4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부에서 포천을 지나 북쪽을 향해서 계속 가다보면 신철원이 나타나는데 신철원에 들어서자 모제품 이유식 광고가 생각났다. "청정지역 철원에서 생산된 무공해 돼지고기"라고 철원지부를 위한 광고로 바꿔봄직도 하다.



▲ 좌로부터 염종수기사, 신성균상무, 김용수지부장, 권은정씨의 모습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에 소재한 철원지부는 93년도에 본회 회원들이 설립한 영농법인인 철원 양돈 영농단지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돼지고기 수출단지로 지정되어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김용수 지부장은 작년 한해 동안 대일 돼지고기 수출이 500여톤에 달했고 96년에는 700여톤을 수출할 예정이라 한다. 또한 수출 단지에 참여하는 농가는 40농가로 거의 회원모두가 참여하고 수출할 때에는 물량이 모자랄 정도이다. 일본의 수입업자들은 철원의 도축장에서 직접 위생상태도 확인하는 등 세심한 관찰을 하며, 일본 토종 돼지와 맛이 비슷하고 육질이 좋다고 한다.

철원에서 사육된 돼지가 육질이 좋은 것은 철원이 물이 좋고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큰 기후의

영향때문이라고 한다.

철원 직영돈육판매장 개설, 시장가격 안정 효과

철원지부는 서울 면목동과 신당동 두군데에 철원 직영 돈육판매장을 개설하여 돼지고기 가격이 작년말처럼 하락하였을 때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연동제를 적용하여 시중시세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철원 직영 돈육 판매장까지의 돼지고기 수송은 2,700만원에 구입한 5톤 냉동탑차로 하고 있다.

또한 직영 돈육 판매장의 판매 이윤은 회원들에게 돌려주고 있어 철원지부실정에 맞는 운영을 하고 있다.

철원지부는 수출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선 회원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종돈장의 설치와 축산분뇨 퇴비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수출단지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사육두수는 4만 5천두이고 6만두를 목표로 사육하고 있는데 수출을 위해서는 종돈을 통일하여 균일한 개체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6만두 종돈개량을 목표로 종돈장을 부지 약 8,000여평에 설치하여 종모돈 450두의 우수종돈을 확보, 철원지부 회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분뇨 퇴비화 사업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처리장 시설 1,200평 규모로 교반식 톱밥 발효시설을 이용하여 양돈분뇨를 자원화한 유기질비료를 생산·판매할 예정이다.

철원지방에서는 유기농법으로 벼농사를 하기 때문에 유기질 퇴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양돈대학」통해 교육실시

철원지부에서는 지부회원들의 단합과 양돈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양돈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일주일에 1번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양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소는 지부사무실 또는 축협건물에서 이뤄지고 사료회사나 약품회사에서 강사진을 초빙하여 질병, 사육관리, 예상되는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30명 내외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강의를 듣는다. 1년후에는 교육수료증을 나눠주며, 양돈교육뿐만 아니라 회원 상호간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회원단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철원지부 냉동탑차－서울에 있는 철원직영돈육판매장으로 돼지고기를 수송한다.

철원지방의 돼지사육두수는 강원도 전체 양돈물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도 농축산물중에서 유일하게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다.

김용수 지부장은 이처럼 이 지역에서 돼지고기 수출로 양돈업을 혐오스럽게 보지않고 산업의 역군이라는 자부심으로 양돈인들의 위상을 세울 수 있고 양돈인 단합과 양돈지식을 습득하게 된 것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고 있으나 회원들이 겪을 수 있는 경영압박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또한 김지부장은 "중앙회가 생산자를 위한 단체이므로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양돈인들의 입지를 강화해 주길 바라며, 철원 양돈농가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자동화로 인력을 줄이고, 사료, 약품등의 공동구매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한편, 균일한 돼지와 품질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해 일본의 수출을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